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도립예술단 신설 공약 어디쯤

# 민선 7기 도립극단·국악단 설치 하나 마나

선거 당시 90억 국악단 공약  
도립극단은 별도 예산 미제시  
당선 후 두 예술단 합쳐 33억  
용역 심의 후 비용 반영 안돼  
국악인들은 창단 촉구 결의문

당선 후 민선 7기 제주도정 문화 분야 공약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역 연극인들은 여태껏 도립극단 창단 촉구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놓진 않았지만 타당성 용역 등 진전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립극단을 바라는 국악인들과 다르지 않다.

▶**현행 5개 예술단 1년에 135억원** 쓰여-제주도내 공립(도립)예술단은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제주도립무용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5곳이 있다. 이들 5개 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포함 135억1700만원 규모다. 한 해 150억원 가까이 예술단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도립예술단 신설은 선불리 거론되지 않았다. 새로 도립예술단 설치되면 현행 예산과 맞먹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정의 도립극단과 국악단 공약은 문화계의 주목을 끌었다.

두 예술단에 투입될 비용은 선거 전후 발표 내용에 큰 차이가 난다. 도립극단의 경우 선거 기간에 원지사 측이 제시한 창단 비용은 인건비와 지원비 등 50억~60억원, 약기구입비 30억원 등을 합쳐 80억~90억원에 이른다. 비슷한 시기 도립극단 공약은 별도로 예산을 언급하지 않았다. 취임 후 민선 7기 공약집에서는 관련 예산이 확 줄었다.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으로 분류해 도립극단·도립극단 두 예술단을 묶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원 제기엔 예술단 만들 일 아냐”** 두 예술단 신설은 일단 출발점에 서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도립극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서 일

각에서는 “제주도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오는 7월 2차 추경을 통해 두 예술단 연구 용역비로 9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예산안에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5개 도립예술단에 대한 활성화와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제주도가 최종 용역 결과를 도립예술단 조례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어서 신설 예술단 추진 여부도 해당 작업이 마무리돼야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도립예술단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용역비를 반영시켜 두 예술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가 현충일의 의미를 새기며 허튼굿 '삼연놀이'를 공연한다.

## 그 녀은 이 땅에 춤이 되고 신명이 되어

마로 6월 허튼굿 '삼연놀이'  
현충일 앞뉘 희생정신 기려  
인연의 풍악 등 3개 주제로

의 풍악' 순으로 흘러간다. 이날 도살놀이와 얹은반 합주로 '애도의 문'이 열리면 뉘을 풀어내는 구음에 대금, 아쟁, 타악기가 더해지고 지전춤이 잇따른다. '우리네 탐라'에서는 우수에 찬 아쟁선율과 파도를 상징하는 춤사위가 이어진다. 마지막 '인연의 풍악'은 신명의 춤판으로 채운다. 현대무용가 김정수를 비롯 양호성 장문선 오유정 고향을 신은오 송해인 오승진 박수현씨가 출연한다.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뉘을 위로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가 6월 허튼굿 공연으로 선보이는 '삼연(三緣)놀이-뉘은 춤이 되어'다.

이달 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곳에서 뉘을 위로하는 연율리기(뉘을리기) 의식에서 영감을 받아 3개의 주제로 꾸민다. 얹히고설긴 혼백의 슬픔을 위로하는 '애도의 문', 그 희생이 지켜낸 이 땅을 돌아보는 '우리네 탐라', 정성으로 달린 뉘이 춤이 되고 신명이 되는 연을 기리는 '인연

마로의 허튼굿은 2009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술로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며 기획됐다. 관람료는 따로 없지만 공연 전후 자발적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공연 30분 전에 도착하면 소극장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와 이야기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 10주년 미술관 음악으로 문이 열리고

도립미술관 야외음악회  
8일 박기영·가능동 밴드  
9일엔 무료 영화관 운영

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서는 6월 21일 개막하는 도립미술관 10주년 기획 제주 작가 99인 초대전 중 일부 작품을 출연해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미리 선보이는 순서도 마련된다.

6월, 10주년 제주도립미술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달 8일 오후 7시 '초대-그날 밤, 미술관 문이 열리고'란 이름으로 미술관 야외공연장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신보라의 사회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뮤지션 박기영, TV 예능 '슈퍼밴드'에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만든 260만부 SNS스타 '가능동 밴드', 아시야를 대표하는 팝 재즈 아티스트 '윈터플레이', 제주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밴드 '사우스카니발'이 출연한

음악회 이튿날인 9일에는 '미술관 속 영화관'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관람 키트를 제공해 자연으로 둘러싸인 야외 공간에서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주말 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끈다. 상징적인 제주 해녀의 삶을 다룬 다큐영화 '물숨'(오후 4시), 아티스트의 성장을 그린 '유니콘 스토어'(오후 7시)를 골랐다. 음악회와 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음악회의 경우 별도 의자가 놓이는 지정석은 미술관 홈페이지(jmoa.jeju.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자유석은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다음 김창덕 작가의 윤희매 작품.

## 밀랍으로 꽃피운 윤희매를 아시나요

다음 작가 '서뽕' 초대전  
짧게 피었다 지는 매화  
밀랍 이용해 사철 감상

철 짧은 꽃인 매화를 오래 곁에 두려 밀랍으로 빚은 윤희매(輪廻梅)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달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귀포 북함문화공간 서귀포문화팩토리충전소(서뽕)에서

진행되는 다음 김창덕 작가 초대전이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한 다음 작가는 선화, 현대미술, 서예, 퍼포먼스, 테크노 바라춤, 다도 등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윤희매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윤희매는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가 잠깐 사이에 피었다 스러지는 매화를 차(茶)와 더불어 사시사철 감

상하기 위해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열을 가는 꽃 없다 말하지 마라'는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서 다음 작가는 밀랍으로 만든 윤희매는 물론 윤희매와 돌가루를 녹여 제작해 '윤희 도자화'라고 명명한 회화, 수묵화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에 마련된다. 이때는 다음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로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다'와 테크노 바라춤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람 가능 시간은 수~일요일 오후 1~6시. 문의 064)738-585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쏘다

#### 표선윈드오케스트라 공연

표선윈드오케스트라(지휘 강훈) 제4회 정기 연주회가 이달 15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다크랜드 마치', '아랑훼즈 협주곡' 등을 선사하고 '서귀포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란 이름 아래 한국 가요 모음곡 등을 펼쳐놓는다. 장진형, 김형철, 윤리원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064)787-7379.

#### 제주도 공예품 공모대전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은 제주도 후원으로 제49회 제주도 공예품 공모대전 작품을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https://kohand.smpatform.go.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물 접수는 6월 22일 오전 11~오후 4시 제주도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7204-8876.

####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

국립제주박물관은 '도요박물관 산책' 6월 둘째 주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6월 8일 오후 2시와 5시 박물관 강당에서 선보인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나와 다른 장애아 친구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들의 우정을 담고 있다. 280석에 한해 인터넷 서점 예스24를 통해 선착순 예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의 064)720-8035.

#### 제남도서관 제주문화탐방

서귀포시 남원을 제남도서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제주문화탐방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탐방은 문영택 사단법인 질도래비 이사장의 해설로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무등이웃, 천제연 관계수로, 최영정금 승전비 등 서귀포 시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이달 19일까지 전화와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예비청년상인 모집 (4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몰 내(內)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을 모집하오니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음식점, 도소매, 수공업, 제조, 서비스업 등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2년간), 인테리어(자부담 포함), 멘토링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미성년자 제외
- 신청기간
  - 2019년 5월 24일(금) ~ 6월 10일(월) 18시
- 신청방법
  -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블로그(jejuym1939.blog.me)접속
  - 공지사항에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자료 다운로드
  - 작성후 이메일 신청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방법	제출처
이메일	dan6113@naver.com ※ 매일 제목 표기 : [이름, 청년몰 창업지원]신청합니다. (예시) [홍길동, 청년몰 창업지원]신청합니다.

- 문의처
  -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조성사업단 064-721-4700